

SK, 사외이사 후보 12명 선정

독립 · 전문 · 성실성 3대 자격요건 검증 … 2월23일 최종 결정

SK가 일반 주주 등이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자문단의 검증을 거쳐 1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SK는 2월13일 이승윤 전 부총리 등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 추천자문단 전체 회의를 갖고 정·관계와 학계, 재계 등에서 추천된 약 50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벌인 끝에 1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했 으며, 선정 결과를 최태원 회장 등 사내외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SK는 아직 후보자 개인별 접촉을 통해 수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개별 후보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SK는 자문단에서 추천한 12명의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검증작업을 거친 뒤 2월23일경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자문단을 통한 추천방식은 소액주주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직·간접적 경영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는 독립성, 전문성, 성실성, 국제감각 등이 고려됐다"고 밝 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7>